두 가지 끝장 정신

(고전2:6~9)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끝장 정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두 가지 끝장 정신.
끝장을 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을 내는 조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작년 말쯤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끝끝내 답을 찾아내는 정신이 당신과 회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는 끝장 정신.
저자 김 정호 씨의 분석에 의하면 요즘 기업들에서 패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패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요불굴의 답을 향한 끝장 정신이라는 겁니다.
인재가 없어서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본이 없어서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인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자본이 없을 수도 있고 기술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힘을 잃고 기업 경영에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열과 패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열정?
반드시 기필코 답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러한 끝장 정신을 무장시키게 하는 그런 정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기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 owner부터 그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원까지 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조직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린다고 하는 취지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답을 내는 조직' 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실제 기업 경영의 현실 속에 적용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적용한 예라고 하니까 그 적용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직 그 결과는 알지 못하지마는, 그러한 정신으로 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무장해서 기업 경영에 임한 실제 사례가 하나 있다는 얘기에요.
태광산업이 지난달 8월8일에 울산 공장에서 '2020년 미래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부문별 리포메이션 보고회'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게 되는 1박2일 동안, 이 회의에서 이 기업의 부회장님 되시는 분께서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신 부회장이신데, 이 부회장님이 연설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태광산업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태광산업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렵다는 얘기를 반영하고 있지요.
참 비장한 얘기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난해에 372억 원의 적자를 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만 해도 140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회장님이신 이 호진 회장님께서는 지난해에 횡령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태광산업이라고 하는 재벌기업 전체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석유와 섬유산업의 주력부분을 두고 있는 그런 재벌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인상에 남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사고방식, 업무시스템, 의사결정, 구조 등 회사 이름만 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꿔야 한다.'
그리고 '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끝장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끝장 정신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목표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끝장 정신으로 무장해서 회사 일에 임할 때에, 필요하다면 이름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사고방식, 업무시스템, 의사결정, 구조…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끝장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고 하는, 필요하다면 다 바꾸자고 하는 이 태광산업의 부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름만 빼고는 다 죽여야 합니다.
어차피 내 몸이 살아 있는 한 이 몸에 붙어 있는 내 이름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 이름과 아울러 신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라는 이름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들과 딸에 대한 관계에서 아들 문제와 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려고 하는 모든 마음가짐을 다 끝장을 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으로 끝장 정신으로 무장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끝장 정신은 내 이름과 신분만 빼놓고는 신분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관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뭐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 관계에서 주어지고 있는 내 신분의 명칭만 놔두고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모든 관계에 대해, 끝장을 내겠다는 끝장 정신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의 맥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그 문제의 답을 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끝장이 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답을 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끝장나야 하는 끝장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이렇게 끝장 정신으로 무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내가 이 세상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느끼고, 그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려고 하는 지혜자적인 삶의 태도를 십자가에서 끝장낼 때, 내가 마음을 떼어 내버린 그 모든 세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정답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정답이 나를 끌고 가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끝장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답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끝장 정신이 있고, 나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일에 대해

서, 문제점을 느끼는 마음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버리고, 답을 찾겠다는 마음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끝장 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에게서는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그리고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전환을 뜻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파의 문제를, 그 이유를 규명하고 해석해 나가는데,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핵심 키로 삼아서 분파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인데, 그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분파가 일어난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내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답을 찾아내려는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2장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 참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속에서는, 자꾸 원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느끼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더 나은 개선점을 찾기 위해 답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죄악 된 삶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함을 통하여 지루함과 식상함과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진정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에서의 지혜를, 여러 주석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건 맞는데, 오늘 이 본문 6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온전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이미 온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지혜가 죄악의 결과요 분파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을 해 왔지만,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 돼서 세상에 대해 죽은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정답을 세상 문제에 대해서 찾는 것 때문에 분파가 생겼고, 세상 문제를 찾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십자가만을 아는 그 길과는 정반대 길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얘기하는 것, 이 세상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로 확 돌아서 버립니다.
단, 온전한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지혜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인생, 이 땅 위에서 진행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한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답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뜻은, 통치자들이라 그러니까 꼭 정치권의 사람들만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 남보다 탁월하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답을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통치자들이에요.
학문분야에서 남보다 탁월하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답을 내는 자들을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대 학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 학문의 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탁월하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업의 대 경영주에요, 기업을 혁신시키는 기업 경영의 대가들이지요.
그들이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탁월하게 답을 발견해 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정치권의 리더들이고, 대통령되고 장관되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도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도 얻지 못할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당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을.
그것도 언제? 만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온전한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죽되, 끝장 정신으로 죽는 겁니다.
내가 아주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주 끝장나게 죽어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끝장나게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당할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대한 정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시냐?
8절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제 분야에 일등 전문가들이 결코 답을 줄 수 없는 내 인생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오직 내 인생에서 내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경제 문제를 당해도, 이 경제 문제에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마치 원 안에 점을 하나 찍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 점 안에 내가 있고, 원 안에 있는 점이 내가 있는 현재 상황이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원주 위에 있는 점, 수많은 점을 잇는 그 모든 선이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방향이 있는데,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방향, 부모가 말해주는 방향, 자식에 의해서 자극 받아서 찾을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최선의 방향을, 정답을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8절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 그래요? 온전히 된 자들에게만 이 답이 주어지니까.
온전히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끝장 정신을 가지고, 내가 아주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마음,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이 상태를, 끝장내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끝장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정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지는 정답이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씀을 우린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일등이 되실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일등이 되실 때.
사업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아내와 남편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관심이 되실 때, 하나님이 일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에요, 우리의 영광도 우리가 일등을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일등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일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대한 정답을 갖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등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옆집에 사는 김 집사보다 내가 앞선다는 얘기일까요, 돈도 잘 벌고 더 건강하게 더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식의 가치기준으로), 그런 것이 일등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가 있고 가운데 점이 있잖아요?
그 점과 원주상의 점을 잇는 선은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선이 최선의 선이냐 이거에요.
쉽게 말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최선의 내일을 위한 오늘이 될 것이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최선의 모레를 위한 내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따져보면, 내 인생 전체가 많~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부모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을 때,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살았을 때,

전문가에게 자문했을 때, 이렇게 내 인생의 모습이 수없이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중에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최선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답을 따를 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선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처럼, 베드로가 순교한 것처럼, 순교의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박 근혜 씨처럼 대통령 되고, 이 건희 씨처럼 재벌총수 되어야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과 천사들이 볼 때 확인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일등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답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이 정답을 추구하고 정답 위에 섰을 때 나타나는 일이, 기차가 레일 위에 섰을 때 나타나는 일과 똑같이, 평강과 내 마음 속에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거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경우에서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황적으로는 막힘이 있을 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는 기차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막힘이 없다는 것은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달릴 때, 하나님의 정답대로 내 삶이 진행될 때 나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 범사에 감사는 어떨 때 나옵니까? 항상 기뻐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삶에 대한 마음을 끝장을 내 버리는, 답을 내겠다는 그 의식자체를 끝장을 내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상에 대해 끝장을 낼 때, 내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항상 기뻐,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이 하늘에서 기쁘고 있으니까, 항상 기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항상 기쁘고 있을 때에,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정하신, 답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현상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매를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눈에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가난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동서가

나를 우습게 보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가 돼있다 그러면, 내가 답을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정답대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정답대로 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과 마음을 끝장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이 끝장 날 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답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 입에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감사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지요.

두 가지 끝장 정신이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답을 찾아내는데 끝장을 내겠다는 끝장 정신이 있고, 이것은 원죄에 먹혀버린 상태이고, 죄악에 먹혀버린 상태이고, 내가 답을 찾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장내고, 십자가에서 끝장내야 돼요 십자가에서 끝장내지 않으면 체념이고 포기이고 매너리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끝장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림으로써 항상 기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만세 전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답에 의해 이끌리는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끝장 정신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름 빼고는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정답들이, 그 이름을 이끌고 가면서 지상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